

# ‘나도 이제 문화예술인’

성악·뮤지컬·하모니카 등  
순창서 예술교육프로그램 제공  
지역민 문화 향유기회 확대 등 효과

순창군이 성악, 뮤지컬, 하모니카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21일 향토회관에서 노래, 연기 등 뮤지컬 배우 조순창씨의 직접 지도 아래 각자의 재능을 꽃피웠다.

대도시에서나 접할 수 있는 성악 또한 지난 17일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교육생들이 소프라노 박희진씨의 지도를 받고 있다.

하모니카도 중년여성의 여가 활동으로 각광받으며, 매주 화요일이면 교육장에 교육생이 꾸준히 모이고 있다.

이처럼 문화예술 교육기회가 늘어난 데에는 순창군이 지난 1월 문화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에 3가지 프로그램이 모두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 사업은 문화회관을 기반으로 예술 체험

및 감상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해 지역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회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후원하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가 주최한다.

군은 지난 3월 이 사업에 공모결과 도내에서는 전주와 완주, 익산 등과 함께 총 4곳이 선정됐으며, 그 중에서 순창군은 신청했던 2개 프로그램 모두가 선정되는 기쁨을 토했다. 이후 4월에 있었던 2차 프로그램 공모사업에서 하모니카 교육프로그램까지 선정됐다.

공모사업 선정으로 군은 소요일간 4천만원의 전액 지원받게 되면서 군비 절감과 주민에게는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등 일거양득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당초 코로나19로 3월부터 진행하려던 교육일정을 6월로 연기하면서, 여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에 대비해 예방수칙을 준수하



순창군이 성악, 뮤지컬, 하모니카 등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지역민의 문화예술향유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사진은 뮤지컬 만세문화제.

며,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뮤지컬 교육은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성악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저녁 7시, 하모니카는 매주 화요일 오전 9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진행된다. 교육에 관심있는 주민들은 순창군청 문화관광과 문화예술계(063-650-1625)로 문의하면 된다.

조태봉 문화관광과장은 “주민들이 대도시로 나가는 불편함을 줄이고자 지역내에서도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공모사업이나 사업발굴에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문화예술 향유기회가 늘어나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창=이양원 기자

## 영유아 교육현장 성인지 감수성 함양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영유아 교사 대상 양성평등 교육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센터장 이은애)는 25일 본 센터에서 영유아 교사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2018년 국가지표체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영유아들이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만 3-5세 인구 중 유아교육기관 취원율은 9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경우 교사와의 상호작용, 놀이 활동 등을 통해 성역할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양성평등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영유아 교사의 성인지 감수성 함양 및 양성평등한 의식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교육내용은 ▲성인지 감수성 진단 ▲성차별 언행 지도법 ▲영유아 교육현장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실천전략 등으로 구성됐다.

강사로는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강사이자, 2017년 여성가족부장관상을 수상하고, 2019년 성평등 콘텐츠 대상 강의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한국전태려문화연구원 양동욱 원장이었다.

교육 참여자 A교사(전주시 덕진동) “차별과 편견이 타인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수단이며 사회의 구조적 차별을 야기할 수 있음에 교사로서 양성평등교육에 대하여 매우 책임감을 가져야 함을 이번 교육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은애 센터장은 “영유아 교사가 자신이 지니고 있는 성역할 관념 및 성인지 감수성을 돌이켜 보고, 양성평등한 교육을 실시하려는 적극적 의지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내 영유아 교사를 위한 양성평등 교육에 센터가 힘이 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홈페이지(www.jbwce.kr)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장은성 기자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하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천 환경개선 자원봉사자 모집

문의전화 063-288-9700



## ‘문화가 있는 날’ 저자특강·공연

덕진도서관 6개 분관서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강연과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특히 올해에는 평일 야간과 주말·휴일 시간대 프로그램이 운영돼 많은 시민들의 참여가 기대된다.

덕진도서관은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문화가 있는 날’ 주간에 송천·금암·인후·족구를·간지·아중도서관에서 저자특강과 공연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매월 마지막 주에 펼쳐지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은 ‘도서관에서 만나는 내 인생의 작가’를 주제로 총 13회의 저자초청 강연과 총 5회의 특별공연으로 진행된다.

이달의 저자초청 강연의 경우 △이혜진 작가의 ‘책 읽는 엄마의 특별한 도서관 활용법’(26일·인후도서관) △케도 작가의 ‘같은 날 당신은 한번도 선택한 적이 없다’(26일·간지도서관) 등이 실시된다.

또 26일 아중도서관에서는 어린이와 부모들

을 위한 버블&풍선공연도 열린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해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올해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특히 평일 야간시간대(오후 7시부터 9시까지)와 주말·휴일 오전시간대(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프로그램을 신설해 학교와 직장을 다니는 청소년과 직장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민들이 추천한 작가를 다수 섭외해 만족도를 높이기로 했다.

덕진도서관 관계자는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 운영 시 마스크 착용, 손세정제 사용, 1m 거리두기, 행사장 환기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최대한 안전한 환경 조성하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여가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특강을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각 도서관별 자세한 행사 일정과 참가 신청은 전주시립도서관 홈페이지(lib.jonju.go.kr)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 도서관으로 전화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기자

## 완주도서관, 내달 7일부터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완주도서관(관장 이용근)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길 위의 인문학’에 선정돼 인문학 강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연은 7월 7일부터 11월 3일까지 ‘우리 지역 발자취 따라잡기’라는 주제로 강연, 탐방 등으로 구성, 총 10회 진행된다.

1차 강연은 ‘완주군의 자연과 문화·역사’를 주제로 7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진행되며 부제는 완주의 자연환경과 지리 등이다.

2차 강연은 ‘최명희 소설가의 불꽃 같은 삶과 문학’을 주제로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총 5회에 걸쳐 매주 화요일 오전 진행되며 부제는 소설가 최명희의 삶과 문학을 말한다 등이다.

완주도서관 관계자는 “이번 강연이 지역주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가지고 우리 고장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더불어 독서문화 생활이 활성화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 신청은 도서관 방문 및 전화로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완주도서관(262-2230, 주무관 이성은)으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